

전주한옥마을 스타트업 페스티벌 성료

전북자치도 - 전주시 - 은행권창업재단, 공동 개최...파이토리서치·동성하이텍·디데이 이브리엔솔루션 3개팀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은행권창업재단(이하 디캠프)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주한옥마을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주한옥마을에서 공동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스타트업 제품 공공실증(테스트베드), 창업경진대회인 디캠프 디데이, 스타트업 제품 전시, K콘텐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은행권창업재단(이하 디캠프)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주한옥마을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디캠프는 2012년 5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9개 금융기관이 1조원 규모를 출연해 설립된 국내 최대규모 창업재단으로 드림 캠프라 불리며, 청년창업자들의 꿈 실현에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공개경쟁 창업경진대회인 디데이 행사를 매월 개최하며 투자자와 대중에게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있다.

전북관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디데이 행사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제품 공공실증(테스트베드)이 함께 진행되며 관심을 모았다.

전주한옥마을의 교통혼잡 및 주차 문제 해소,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정보 및 식음료 배송 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디지털화 등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도내 외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제품을 실증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

도가 이루어졌다.

25일 디데이에는 전국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 면접을 통과한 8개 팀의 열린 프리젠테이션 경쟁이 이루어졌다. 발표팀 모두 디캠프로부터 최대 3억 원의 자본투자자와 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상 3개 팀 모두 전북기업이 선정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식물조직 배양기술 혁신 스타트업인 파이토리서치(김연준 대표,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전주한옥마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 탄력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성하이텍(대표 이

용석, 전주)이 전주시장상을, “재만금 허름한 창고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 제조 회사인 이브리엔솔루션(대표 민원기, 군산)이 디캠프 센터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디데이 디캠프 심사평가를 맡은 한 투자사 대표는 “지역 배려 없이 공정하게 선정하였는데, 3개 팀 모두 전북기업이 선정되었다.”며, “최근 전북창업기업의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6일에는 K콘텐츠 특화 전주한옥마을 리모트워크 및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투자자 크립

톤 양경준 대표, 소풍벤처스 한중호 파트너와 열혈강호 전병진 대표(콘텐츠 회사인 만화 열혈강호의 제작 및 IP 운영), 스튜디오 하이 흥인표, M83 스튜디오 김호성 등 K콘텐츠 전문가가 참여하여 K콘텐츠의 사업화 등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K콘텐츠의 매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도내 외유명 창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며, 전북이 갖고 있는 K콘텐츠 자산이 스타트업의 사업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예방수칙 준수로 안전한 해외여행 되세요”

도, 해외여행 시 해당 지역 유행 감염병 확인·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방문 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26일 전북자치도는 예방수칙으로 여행계획 시 사전에 해외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국가별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귀국 후에는 증상발현 등 건강 상태를 관찰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당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여름철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두통, 발진, 발열, 결막염 등을 유발할 뿐만 아

니라 임신부가 감염되었을 때 태아 소두증 등 신경계 질환이 발생하여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동지역 여행 후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며 자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확인 진단을 실시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뎅기열과 같은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우리 동네 밤거리는 우리가 지킨다’

전북자치도, 합동순찰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도민의 안전한 저녁 귀갓길 행거리에 나섰다.

자경위는 지난 26일 야간 무렵 전북대학교 주변에서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 정영후 전주덕진자율방범연합회장, 자율방범대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도민안전순찰대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특히, 전주 가막축제 행사장에 대한 인파 관리 등 안전점검과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자치경찰 도민안전순찰대”는 기존 읍·면·동 지역단위 방범순찰 활동에서 탈피해 시·군 단위 광역순찰을 전개하는 도민참여형 협력치안 강화 사업이다. 올해 도민안전순찰대 공모

사업에 전주시, 익산시를 선정하여 전주·삼천 산책로와 전북대·원광대 원룸 밀집지역, 덕진·아중공원 등 범죄취약 지역에 대해 주 2회 야간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범죄예방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경위는 이번 전북대학교 주변 원룸가 순찰로 범죄취약지역과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내년도 셉테드(CPTED)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연주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야간 순찰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 치안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위기아동 발굴·아동학대 예방 위해 ‘민·관 뚝뚝 뭉쳤다’

전북자치도, ‘위기 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회의’ 개최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및 14개 시군 아동보호담당 공무원과 도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위기·피해 아동 조기 지원 사업’ 및 ‘아동행복복지사업 상시발굴체계’ 운영 방안과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이프 스타트 사업’을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동학대 위기·피해 아동 조기 지원 사업은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부터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아동 및 가족구성원에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 회복 및 양육 교정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전북자치도는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당초 3개 시에 한정되었던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까지 확대 시범 시행할

방침이며, 연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행복지원사업 상시 발굴 체계’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는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전북형 학대위기·피해아동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2024년도 국립공원 재난안전 포스터 및 동영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에 대한 관

국립공원공단, 내달 재난안전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

심을 높이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포스터와 동영상 분야,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포스터 공모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어린이

를 대상으로 하며 크레파스·물감 등으로 채색한 손그림(8절지, 272mm X 394mm)을 디지털 파일 형태(5MB 이하 jpg)로 저장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동영상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

하며, 3분 이내의 영상을 촬영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l1dudwn@knp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기자

도, 찾아가는 안전신고 역량강화 교육

전주·완주·임실 안전보안관·안전모니터봉사단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단체의 안전역량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내 1권역인 전주, 완주, 임실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안전신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

시했다.

교육은 안전신문고 사용법과 안전신고 요령 외에도 심폐소생술, 실제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 등 실습 위주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